

2024. 5. 11.(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설계공모 주관)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사업 주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02-2133-7640
공공건축1팀장	육근형	02-2133-7617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02-2133-8060
도로공간계획팀장	김정헌	02-2133-8086
누리집	project.seoul.go.kr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8쪽

잠수교 서울에서 가장 길고 안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서울 첫 보행전용교 '26년 완공 (800m)

- 서울시, '문화의 다리, 잠수교(디자인 설계 및 콘텐츠 기획)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발표
- 당선작 <The Longest Gallery>, 입체 보행다리 등 800m 길이의 문화공간으로 조성
- 시민공유 공간 넓혀 입체적 관람 가능, 한강파노라마 전망도 제공..상징적 색상 활용
- 잠수교 안전성 확보 최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 2회 진행 등
- 내년 착공, 이달 12일·19일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서 당선작 가상현실(VR)로 공개

서울 최초의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변신할 잠수교의 모습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아름다운 한강 파노라마 전망을 배경으로 하는 800m 길이의 '서울에서 가장 길고 특별한 야외 미술관'으로 탄생하는 것. 여기에 시민들이 365일, 언제든지 걸으며 한강과 서울 도심에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필수적으로 갖췄다.

서울시가 특별한 공공 공간(Public space) '문화의 다리, 잠수교(디자인 설계 및 콘텐츠 기획)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10일(금) 발표했다.

-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길이 795m·너비 18m로 한강다리 중 가장 짧고 접근성이 좋은 잠수교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들이 걸으며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수변명소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설계비 7억원, 예정 공사비 1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선작 <The Longest Gallery>, 입체 보행다리 조성해 800m 길이 미술관으로 설계 >

- 최종 당선작은 아치 미스트(Arch Mist, 대표 Ningzhu Wang, 네덜란드)사(社)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The Longest Gallery)’이 선정됐다.
- 아치 미스트사는 서울시가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씨피에이(CPA)구조기술사사무소(박철호), 마디엠지티종합건축사사무소(김동욱)와 공동 응모했다.
- 이 작품은 잠수교 위에, 떠 있는 공중 보행다리(DECK)를 조성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한강의 특별한 파노라마 전망도 연속적으로 제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콘셉트다. 또 강렬한 색상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평상시에는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패션쇼 런웨이, 야간 야외 영화관, 결혼식과 축제 등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 멀리서도 눈에 띄는 강렬한 분홍(핑크)색상을 사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고받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 이번 설계공모작 선정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이다. 한강과 잠수교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 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잠수교 안전성 확보 최우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기술검토위원회 2회 진행 등>

- 우선 1차 지명작 5개 팀에 수리·구조분야 등 엔지니어링사와 협업해 기술적 안전성이 확보된 디자인(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제출안에 대해 건축·구조·수리·운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가 두 차례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진행했다.
- 4월 26일(금) 1차 분야별 검토 후 지명건축가의 확인의견서를 제출 받고, 5월 7일(화) 2차 자료검증을 통해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한 잠수교 안전성 확보여부, 구조설계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종합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전달했다.
- 기술검토위원회는 ▲(건축)이정훈 대표(조호건축사사무소) ▲(건축)윤창기 대표(종합건축사사무소 경암), ▲(수리)손민영 이사 (도화엔지니어링) ▲(구조) 공정식 교수(고려대학교) · 홍기중 교수(국민대학교, 구조분야) ▲(운영) 안신훈 과장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으로 구성됐다.
- 최종 심사는 지난 8일(수) 건축, 운영·콘텐츠 분야 전문가 참여한 가운데 한강 경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자인적 측면과 보행 네트워크, 안전성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기술검토위원회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참가자가 제출한 하중계산 및 구조 검토 근거 자료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 심사위원회는 ▲김재경 교수(한양대학교) ▲박희찬 대표 (스튜디오 히치) ▲양수인 대표(삶것건축사사무소) ▲조항만 교수(서울대학교) ▲최윤희 대표(바래건축사사무소) ▲송수진 교수(고려대학교) ▲최도인 본부장(메타기획컨설팅)으로 구성됐다.
- 시는 당선자와 다음 달부터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에 '25년 착공, '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설계 공모 2등작은 ▲CHEUNGVOGL(Christoph Vogl) + C.S 구조엔지니어링(김종수)이 입선작으로는 ▲에테르쉽(양성구) + 삼안(최동식) ▲ DESIRE SPACE(박혜주) + 씨애피동양(정광량) + WEST8(Shelley Long) ▲ 제제합건축사사무소(박종대) +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천병희)가 선정됐다.
- 문화의 다리, 잠수교(디자인 설계 및 콘텐츠 기획) 설계공모 심사 전 과정 및 결과는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projectseoul.go.kr)' 또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래 잠수교의 모습을 담은 당선작 이미지는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기간 중인 12일(일)과 19일(일) '가상현실(VR)전시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공개된다. 주변에는 포토스팟도 마련해 시민들이 다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 ‘2024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5월 5일(일)부터 6월 23일(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와 달빛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서울의 대표적 한강 축제이다.

□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설계 공모의 시작부터 많은 신경을 써온 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다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첫 한강보행교이자 한강 위에 생기는 첫 수변문화공간이 될 잠수교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붙임 : 설계공모 당선작(The Longest Gallery) 이미지





